

“성결인이여 빛을 발하라” (사 60:1)



충회성결교신학교 학장 김순홍 목사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20)

2024년을 은혜와 사랑, 순종과 평강으로 인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역사 속의 시대의 흐름과 사람들은 변화와 사라짐이 반복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마 24:35).

송길영은 '시대예보: 획개인의 시대'라는 책의 프롤로그에서 "이제 옷 차림을 위해 한 철의 기상을 알려주는 일기예보보다, 내 삶을 대비하기 위한 더 큰 호흡의 '시대예보'를 시작합니다"라고 말하며 쫓겨가고 흩어지며 홀로서는 획개인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합니다. 매년 발행하는 2024년 코리아 트렌드 10가지 키워드 중 첫 번째를 '분초사회(Minute Second Society)'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시간'을 최우선 가치로 살아가는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일상의 생활방식에 있어 시간의 효율성이 중요해짐을 말합니다.

변화무쌍한 시대와 개인이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 대답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변화하기 전에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변화보다 더 중요함이 틀림없습니다.

충회성결교신학교는 2024년과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변하는 사회에서 없어지지 않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도전하고 실천하도록 학생들을 안내하고 섬기겠습니다. 2024년에 개설된 특강으로

는 '성경묵상과 성경해석(이전설 교수)'과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양용의 교수)'로 진행되었습니다. 학기 중 성경 본문으로는 창세기, 출애굽기, 예레미야, 열왕기상·하, 요한복음, 사도행전, 빌립보서(설교화)와 조직신학1,2, 기독교영성사가 전공한 교수들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에도 영원한 하나님 말씀 앞에 학생들을 세움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개인이 해석되고 변하는 사회를 해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가르치겠습니다.

교회마다 부교역자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회 성도님들 중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권면하여 충회성결교신학교에 보내주시십시오. 성도님들을 학교에 보내시면 부교역자의 이동으로 걱정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사역자가 아니어도 지원하여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이버과정이 있습니다.

- 충회성결교신학교를 위해
1. 기도해주시시오.
 2. 학생들을 보내주시시오.
 3. 물질로 후원해 주십시오.

2025년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개인과 가정, 교회에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장로회전국연합회 회장 김종현 장로

이 혼란한 시기에 희망은 복음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이지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에는 전국에 흩어져 있던 성결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1907년 순수한 전도운동으로 시작된 성결교회가 119주년이 되는 2025년에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충회를 비롯하여 전국교회에 큰 은혜를 내려 주셔서 성도마다 성결의 신앙으로 더욱 성숙해지며 교회를 마다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성결이 우리 교단민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룩한 유산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단적으로나 개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성결의 깃발을 들고 더욱 힘차게 전진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침체되어가고 있다고 낙심들을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조

금씩 인지도의 상승과 함께 대 사회 섬김영역에서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이 혼란한 시기에 우리의 할 일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이라는 희망의 가치를 높이 세우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웠던 2024년을 뒤모하고 이제 2025년에는 보다 밝은 희망이 떠오르리라 믿으며 우리가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섬김 정신으로 나간다면 분명 놀라운 성장과 화합의 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기쁨의 소식이 우리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공동체 위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장로회전국연합회는 교단신학 교회와 목사님들을 섬기며 교단의 한 앞의 밑일이 되어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묵묵히 전진해 복음의 가치를 들고 기도하며 나갈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 노재익 장로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아갑시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성결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찬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인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렘 29:11)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약속을 믿고 힘차게 2025년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성결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 남전도회전국연합회는 임원들만 일하는 곳이 아닌 전 교단 모든 신하 지교회 남전도회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활동하는 총회 소속 연합기관입니다.

남전도회 회원들은 개교회에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며 사회에서도

믿는 자로서 인민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친교와 신앙간증 그리고 총회와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가지고 교단 발전에 기도하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남전도회전국연합회는 카렌다 사업부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총회 사중복음화관 건립기금으로 1억원을 헌납하였고, 매년 지속적으로 국내 신개척교회와 해외선교지 분서선교, 장학, 복지 그리고 각종 행사 지원 등을 통해 명실공히 총회 소속 연합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에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목사님들과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새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 성결대학교 총동문회 신년하례회

회장



황성환



이상화



이규현



안영호



박수정



송영만



방명숙



박광일



엄복용



류승용



유훈주



이재섭



이상복

부회장 : 공요셉 김민주 김계동 김만수 김성진 김윤석 김영국 노윤식 라건국 류승용 박기홍 배상도 배지현 신선범 손환모 이규 이상화 이정길 임대진 엄복용 장현진 전주우 진상만 조승철 조홍영 최상현 최중화 홍사진

성결대학교 총동문회 지정 장학금을 모금합니다

성결대학교 총동문회에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업에 매진하는 후학들을 위하여 지정장학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모교를 위해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결대와 대학원에 재학중인 개교회 교역자나 일반성도, 목회자 자녀 등을 지정하신 후 기부하시면 지정된 학생에게 전액 지급 전달됩니다.

- 성결대학교 총동문회 계좌번호 :
- 기업은행 : 562-008219-01-018 (성결대학교 총동문회)
- 문의 : 사무총장 이규현 (H.P: 010-5442-4755)

- 일시 : 2025년 1월 9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시흥 마벨리에(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201 ☎ 1899-9991)
- 회비 : 20,000원